

자영업자들 민노총을 상대로 불법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제기 민노총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골리앗인가

1. 한변은 2021. 11. 10. 종로구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민노총을 상대로 집회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작년부터 코로나 19 방역 등을 이유로 한 현 정부의 각종 제한조치로 인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상황이다.
3. 그런데 민노총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방위적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해오면서 생계의 극한에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있다.
 - (1) 민노총은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 확산 위험성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3. 토요일에 신청인들의 점포가 있는 광화문, 종각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란 이름으로 1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지하였다.
 - (2) 또한 민노총은 2021. 11. 27.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2021. 10. 20.에도 서울시와 경찰이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역 밖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기습 집회를 열어 도로를 마비상태로 몰아갔다.
 - (3) 민노총은 그에 그치지 않고 2021. 11. 9.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속 파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민노총 산하의 철도노조는 오는 11. 19.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거부 투쟁에 이어 오는 같은 달 25. 파업에 돌입하며, 화물연대본부는 이달 말 1차 총파업에 이어 12월 말경 2개월간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 11.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 원